

## 울릉도 민가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 벽체, 지붕, 창호, 천장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Transformation Process of Vernacular Houses in Ulleung-Island - Focused on wall, roof, window and ceiling -

김찬영\*  
Kim, Chan-Yeong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idential house in Ulleung Island in terms of building materials, structure and construction method, structural design by actual field surveys. This study found several facts; First, the house was classified into the log house and mud-wall house according to building material for wall structure. The log house prevailed in the early days of the settlement in the island because of affluent timber materials available around. However, the mud wall house became a popular type in later days because of the depletion of timber materials. Second, the Udeki wall was an unique installation reflecting the severe climate conditions of Ulleung Island. However, many aspects of the Udeki wall was changed according to the change of living style and the introduction of modern heating systems in terms of its function, size, building material, layout position etc. Third, the roofing material also has been changed from materials available locally to slate materials transported from the mainland. Fourth, the bamboo slender-ribbed door as a single-swing door type was popular and later time the single-sliding door or three ribbed door was widely used in rooms installed later instead. Fifth, the roof was placed over the room, kitchen, and Chukdam (outer wall) and this was a reasonable way to cope with heavy snowfalls in the winter season in Ulleung Island.

Keywords : log houses, mud wall houses, udeki, bamboo slender-ribbed door, chukdam

주요어 : 투막집, 화통집, 우데기, 죽살문, 축담

## I. 서론

### 1. 연구목적

민가는 전통사회를 구성하고 있던 절대다수 민중들의 집이므로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기후와 지리적 특성에 의한 자연환경적 요소는 물론 생업형태와 문화·관습까지 담겨져 있다. 이들의 건축행위는 한정된 지역 내에서 활동하였던 민중 기술자 자신들이며, 오랜 세월동안 축적된 건축기술력과 경험을 토대로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공간구성, 재료, 구조 및 시공기술은 그들의 자연환경, 경제성, 합

리적인 사고방식에 그대로 반영되어 표현된다.

이에 본 연구는 동해 유일의 도서군으로 본토와 문화적 교섭이 크게 제약되어 온 울릉도 민가의 구성요소인 벽체, 우데기, 창호, 천장, 지붕 등을 조사해 그 특성을 분석한 뒤 이들이 변화해 온 과정과 여기에 영향을 주었던 요인은 어떤 것이 있었는가를 파악하였다. 아울러 타 지역 민가와와의 관계성도 고찰하였다.

### 2. 울릉도의 정주환경

#### 1) 略史와 개척

울릉도는 울릉·우릉·우외 등의 이름으로 불리우는데, 이는 武陵, 羽陵, 芋陵, 于山 등의 고유명을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연구원. 공학박사

한자로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서울대학교박물관, 1998 : 17). 울릉도는 동해 유일의 도서군으로 우리나라에서 일곱 번째(72.58 km<sup>2</sup>)로 큰 섬이다. 울릉도에 본격적인 개척은 고종 20년(1883)<sup>1)</sup>정부 주도하에 강원도 지역에서 7~8호, 경상도 지역에서 10여 호를 이주시키고, 뒤이어 전라도 지역 등에서 4월에 1, 2차로 16호에 54명의 농민을 입도시킨<sup>2)</sup> 것이다. 이들은 주로 농사가 가능한 계곡 상류의 원시림 골짜기를 화전 개간해 정착하였다.

2) 자연환경

울릉도는 거대한 화산의 정상부가 해면상에 노출되어 형성된 화산도이다. 섬의 중앙부에 솟은 성인봉(해발 984 m) 주변으로 900 m 이상의 고봉 4개가 삼각능선을 이루어 3개의 행정구역 경계와 골짜기 그리고 침식곡, 3개의 하천 수계로 나뉘는 주맥이 된다. 이러한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섬내 평균 경사도는 25°로 매우 험준한 편이다. 자연환경은 三無五多<sup>3)</sup>로 섬 전체에는 592종의식물(경북대학교·울릉도, 독도종합학술조사단, 1977 : 6)과 조류 54종, 곤충류 345종에 파충류·양서류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울릉도의 기후는 연평균 온도가 12°C로서 온도차(5.8°C)가 적어 쾌적한 주거생활에 적합하고, 연간 강수량은 겨울의 강설량 이 많아 전국에서 가장 강수량이 많다. 연평균 풍속은 4.5 m/s로서 전국에서 가장 강한 바람과 폭풍일수를 가지고 있다.

특히 기후와 지형은 인간의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가옥형태를 결정한다. 울릉도는 외부와 비교적 고립된 도서라는 지역성과

표 1. 울릉도의 기상조건

	년평균 기온 (°C)	최저 기온 (°C)	최고 기온 (°C)	평균 강수량 (mm)	최심 적설량 (cm)	년평 균풍속 (m/s)
울릉도	12	0.6	23.9	1,485.2	232.0	4.5
대 구	12.6	-1.6	25.9	979.3	55.4	
강 룡	12.1	-1.0	24.3	1,282.1	86.8	

화산에 의한 험한 산세와 강풍, 겨울철 강설량이 전국 최대라는 자연풍토환경을 가진다. 특히 겨울철에 폭설이 내릴 때는 집안으로 세차게 들이치는 눈을 막을 장치가 우선 필요했다. 또 이웃간에 교통이 두절될 뿐만 아니라 장기간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이 기간동안 모든 주생활은 가옥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울릉도의 험한 산간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주거를 이 지역의 자연풍토환경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우선적으로 고민하였다.

3) 생업형태

울릉도의 생업은 농업으로 15~30°의 산을 개간해 만든 화전경작이 대부분이고, 논은 겨우 4%에 지나지 않는다. 그뒤 지역별, 가옥간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해방 전부터는 양잠, 60·70년경 부터는 약초(인삼, 당귀·천궁·지황)산채, 마늘 등 소득작물재배와 양축농가<sup>4)</sup>가 소득의 대종을 이루고있으며, 양잠은 1983년부터폐잠되었다(울릉군, 1989 : 166~172). 농사는 발농사 위주의 생업형태로 종자의 파종과 수확시기가 다르고 육지의 논농사에 비해 외부마당보다 실내작업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가파른 산비탈에 입지한 밭도 있지만 생업형태상 옥외작업이 크게 필요치 않기 때문에 외부마당은 좁거나 거의 없는 경우도 있다. 한편 광복 후에는 농업보다는 어업이 큰 몫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4) 울릉도 민가의 변용

민가의 평면유형은 생활양식과 기술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만, 자연환경, 주생업, 가족제도, 인문·사회적 조건도 크게 반영된다. 따라서 특징지역

1) 이규원의 『鬱陵島檢察日記』에 의하면 당시 울릉도 체류민은 조선인 140명(출신별로 전라도 115명, 강원도 10명, 경상도 10명, 경기도 1명), 일본인 78명이었다. 직업별로 造船(採鑿 포함)이 129명, 採藥이 9명, 製竹이 2명이었다. 造船者는 일시 거류자로 활동하다가 후일 개척이 이루어지자 이들 중 상당수가 개척민으로 탈바꿈한 것으로 보인다.

2)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울릉도·독도의 종합적 연구』, 1998, 29~30쪽. 정부는 4척의 선박에 백미 60석, 술 2정, 종자용벼 10석, 콩 5석, 조 2석, 팥 1석, 기타 20여종의 물자와 設邑說村을 위해 작업할 목수와 대장장이들과 방어용 총검 등의 무기도 실어 보냈다.

3) 三無·도둑, 거지, 뱀, 五多·香, 風, 美, 水, 石.

4) 설일수는 70일 내외, 평균 적설량은 약 1m 내외이며, 最深적설량은 2m가 넘어 전국에서 최고의 심설지역이다. 특히 나리분지는 평균적설량이 약 3m가 넘어 주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5) 양잠은 1910년경에 倭人島司 茶谷이 권장하여 1970년경까지 농가소득에 많은 영향을 준 특화작물이었다. 축우는 1900년경에 울진군에서 반입된 이후 1939년 일본인 島司 馬十一가 처음 영덕군에서 犏牛를 반입한 후 줄곧 축우 수가 점차 늘어 1960년경부터는 농업경계에 큰 혜택을 주었다. 양돈은 自家 婚姻喪祭用으로 자가소비를 위하여 사육되었다.

표 2. 연구대상 목록

가옥명	소재지	건립시기	비 고
나리동투막집	북면 나리 124	1945년경	민속자료제56호
나리동너와집	북면 나리 112	1940년대	민속자료제55호
나리동투막집	북면 나리 117-4	1940년대	문화재자료제82호
나리동투막집	북면 나리 307외2필지	1985년개축	문화재자료제83호
나리동투막집	북면 나리 316-1	1945년경	민속자료제57호
최수현 가옥	북면 현포리 604	1910년대	투막+화통집
황부근 가옥	북면 현포리 368(살강터)	1940년대	화통집
박만진 가옥	서면 남서리 148(남서)	1940년대	화통집
윤성진 가옥	서면 남서리 146-2(남서)	1940년대	화통집
신원수 가옥	서면 남서리 119(남서)	개척 초기	투막집+화통집
정기록 가옥	서면 남서리 103	1932년	투막집
김선임 가옥	서면 남서리 308(구암)	1940년경	화통집
이종해 가옥	서면 남서리 421(서당)	개척 초기	투막+화통집
정초일 가옥	서면 남양리 300(석문동)	1936년	화통집
이수철 가옥	서면 남양리 298(석문동)	1930년대	화통집
김기철 가옥	서면 남양리 222-5	1925년	화통집
손모익 가옥	서면 태하리 369-1(학포)	1940년대	화통집
이경백 가옥	서면 태하리 403-2(학포)	1940년대	화통집
대구천주교회유지재단가옥	서면 태하리 400(학포)	1940년대	화통집
이옥순 가옥	서면 태하리 402(학포)	1950년대	화통집
손태준 가옥	서면 태하리 379(산막)	1930년대	화통집
김영호 가옥	서면 태하리 330(산막)	1940년대	화통집

내의 주거문화권에는 하나의 원형이 있고, 여기에 끊임없이 발생하는 주거욕구와 생활형태의 변화에 따라 원형에 다양한 수정과 변용을 요구하게 된다.

울릉도 민가형은 험준한 산간지역에서 외부와 비교적 고립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모든 주생활을 몸체에만 집중되도록 주거공간을 꾸준히 변용시켜 온 독특한 하나의 주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육지와 일정한 종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자연환경과 생업, 인문·사회적인 측면에서 서로 달리 적용된 결과 때문이다. 개척 초기에는 주변의 울창한 산림을 벌목해 만든 투막집<sup>6)</sup>을 많이 짓고 살았으나, 산림벌목의 금지와 생업전환, 경제력, 가족제도, 주거욕구 등

이 반영되면서 기둥을 세우고 심벽을 친 화통집<sup>7)</sup>이 많이 지어졌다. 또 투막집에서 증설부분은 화통집으로 짓는 시기적인 변화도 있다. 지붕체는 주변에서 쉽게 습득되던 새, 너와, 굴피 등의 자연재료가 대부분 골함석으로 바뀌었다. 울릉도의 지역적 기후환경 특성이 가장 잘 반영된 우대기<sup>8)</sup>는 새, 옥수수대벽이 내구성 좋고 가벼운 널판재나 골함석으로 바뀌었고, 출입문도 개폐가 용이하고 밝은 실내공간을 위해 거적문이 대부분 유리미서기문으로 교체되었다. 한편 조사당시 산간오지에 위치한 민가들은 해변가나 읍·면내, 육지 등으로 이사 나간 빈 집이 많아 자연적 훼손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적 문제에

6) 통나무로 귀틀을 짜서 벽을 만든 집으로 투막집·투방집·귀틀집 등으로 불리운다. 우리나라의 산간지방이나 깊은 산골의 화전민촌 등에서 옛날에는 많이 볼 수 있던 집이지만 지붕에 따라 이름을 달리 붙이기도 한다. 평북지방에서는 틀목집이라 부르고, 평남지방에서는 방틀집 또는 목채집, 태백산맥계의 강원도나 경북지방에서는 투방집이라고도 부른다.

7) 화통집은 기둥을 세우고 외가지를 엮어 짠 틀위에 흙을 바른 벽으로 된 집을 지칭한다.

8) 우대기는 울릉도 민가에서 가장 특징적인 시설물이다. 지붕의 처마안쪽에 여러 개의 기둥을 집 주위로 세우고 새(茅)로 이엉을 엮어 출입구를 제외하고, 그 기둥에 기대어 집 주위에 새벽을 친 것이다. 이는 防風, 防雨, 防雪, 遮陽의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실내의 채광과 통풍이 나쁜 단점이 있다.

직면해 있다.

연구대상 및 시기는 울릉도에 현존하는 민가중 해방이전에 건립된 것 중에 원형이 양호한 것을 선별해 조사하였다. 그리고 시기적인 변화과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1950년에 건립된 가옥도 선별해 조사하였다. 현장조사는 2001년 12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약 1년간에 걸쳐 울릉도 전역의 산간마을을 직접 찾아다니거나 현지인의 제보를 통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조사 대상가옥은 북면에 7가옥, 서면에 15가옥으로 총 22가옥이다.

### 3. 선행연구 고찰

우리나라의 민가연구는 주로 유형분류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첫째, 각 지역별로 달리 나타나는 평면적 특성에 따른 지역적 분류 둘째, 건물 몸체의 간살짜임에 따른 몸체의 열에 따른 분류 셋째, 바닥구조 형식에 따른 분류 넷째, 주거공간의 집중도에 따른 분류(허중환, 1992: 69~84)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특히 울릉도 민가연구는 장보웅의 『한국의 민가』, 「울릉도의 누목식 민가」가 대표적이다. 이 연구는 울릉도에 이주한 개척민들이 본토와 다른 자연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민가를 어떻게 변용시켰는가를 규명하고자 1977년 1월 16일~17일 4일간에 걸쳐 가장 오지인 나리리의 투방집을 대상으로 평면과 배치, 구조(지붕재료 및 형, 벽체, 우데기)를 분석한 것이다. 이 분석에서 평면규모는 一자형에 3칸, 4칸형에 모든 기능이 몸체에 집중되는데, 이는 적설시에 옥내활동을 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파악했다. 또 나리리의 민가를 벽의 구조와 재료로 분류할 때, 투방집은 화전경작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화전경작의 문화를 습득했던 주민들이 이주해 옴으로써 형성된 것으로 보았다. 이때 조사가옥중 대부분은 1984년과 1986년에 민속자료 3동가옥 문화재자료 2가옥이 각기 지정된 후 복원·정비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논문은 선행조사된 나리리 민가를 포함해 울릉도 전역의 민가를 현장조사하고, 각 민가의 건축적 구성요소인 벽체, 창호, 우데기, 지붕, 천장 등의 특성파악과 더불어 이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갔고, 그 변화의 요인이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하였다.

## II. 조사 사례 및 분석

### 1. 벽의 구조와 재료

울릉도에서 조사된 벽의 구조 및 재료상의 분류는 화통집과 투막집으로 대별된다. 투방집 또는 투막집으로 불리우는 귀틀구조는 초기 울릉도 이주민의 주류가 태백산맥계의 사람들로 예전까지만 해도 교통이 불편한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고도에서 오래 살다보니 투방집이 투막집으로 변형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김일진, 1996: 86). 이번에 조사된 22가옥 중 투막집은 나리분지내 각종 문화재로 지정된 5가옥과 정기록 가옥을 합쳐 6가옥이고, 투막집에 화통집이 증설된 것은 신원수, 이종해, 최수현 가옥 3가옥, 나머지 13가옥은 화통집이다.

투막집은 구조적 안정성과 더불어 목재 자체의 습도조절능력기능 및 낮은 열전도성으로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해 준다. 또한 통나무 틈새는 흙으로 치밀하게 마감함으로써 목재의 습도조절기능을 보완하



사진 1. 정기록 가옥 벽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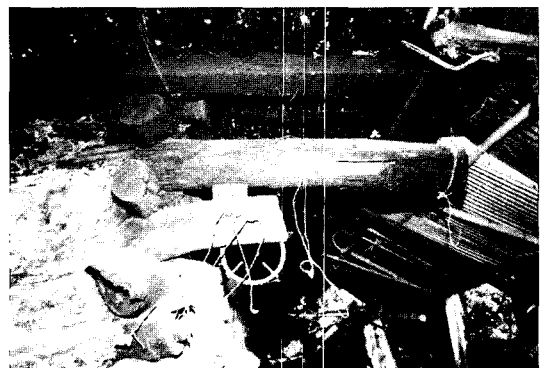


사진 2. 신원수 가옥 처마

표 3. 조상대상 가옥의 목재 재료와 규모

구조	투막집	화통집	투막집+화통집
재료	통나무	기둥+심벽	통나무+기둥 · 심벽
규모	6가옥	13가옥	3가옥
	3칸형-1가옥 4칸형-4가옥 5칸형-1가옥	3칸형-2가옥 4칸형-6가옥 5칸형-5가옥	4칸형-1가옥 5칸형-2가옥
	가옥	나리리 5가옥, 정기록	김선입·이수철 윤성진·박만진 이옥순·정초일 이경백·황부근 손모의·손태준 김영호
		신원수 이종해 최수현	

고 침기현상을 방지하며 자체의 축열성능을 더욱 쾌적한 열환경으로 제공(이경희, 1999 : 108)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투막집은 주변의 울창한 산림을 이용할 수 있고, 벽체가 내력벽이므로 강풍과 눈이 많은 이곳 자연환경에서는 매우 적합한 벽체구조라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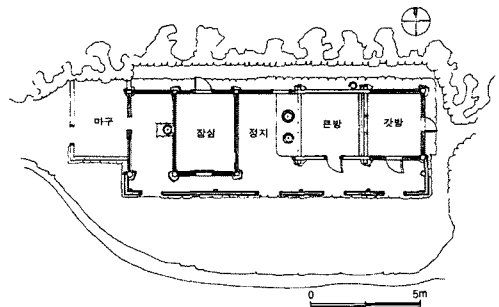
이들 투막집중 이종해, 신원수, 최수현 가옥은 벽체 최상단 통나무를 길게 돌출시켜 지붕 서까래를 받도록 했다. 이런 가구법은 몸체 위주의 생활공간에서 수장공간까지 공용화된 내부공간에 보다 적극적인 공간확보를 위해 우데기까지 연장된 서까래를 안정적으로 지탱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처마구조는 강원도 산간지대의 소수 화전민 투막집<sup>9)</sup>에도 확인된다. 이는 강원도 산간지대의 화전 경작문화를 경험한 주민이 이주해 옴으로써 형성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험한 산간에 강풍과 눈이 많은 독특한 이 지역의 자연환경을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지역민의 자생적 환경설비인 셈이다. 한편 화통집은 초석 위에 네모 또는 둥근기둥이나 네모·둥근기둥<sup>10)</sup>을 혼용해 세워 상·중·하방을 걸치고 외를 엮어 흠벽을 친 집이다. 울릉도에서 조사된 민가중 벽체의 구조별로 변화양상을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화통집은 1925년에 건립된 김기철 가옥을 필두로 현재까지도 주요한 가옥구조로 정착하였다. 한편 투막집은 개척초기에 지은 것으로 전하는 신원수, 이종해, 최수현 가옥을 비롯해 1932년에 이진된 정기록 가옥과 1945년 전후경에 복원·정비된 나리리 분지내에 5가옥이 있다. 이들의 변화양상을 투막집, 화통집으로 구분시켜 그 대표적인 사례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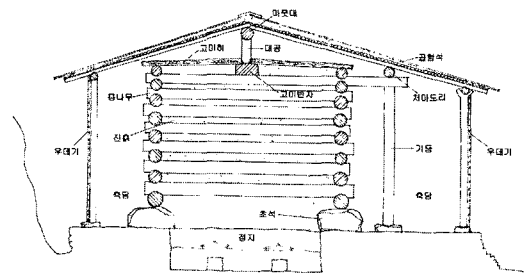
<투막집>

[사례 1] 신원수 가옥

신원수 가옥은 부속채가 없어 모든 주생활 기능은 몸체에 수용된 폐쇄적인 공간특성을 보여준다. 평면은 마구+잠실+정지+큰방+갯방으로 구성된 5칸형이다. 벽체구조에서 주목되는 점은 큰방 1칸만 투막집이고 나머지는 화통집이다. 이러한 벽체구조상의 차이는 개척 초기에 정지와 방 1칸을 갖춘 막살이계의 투막집을 짓고 살다가 1945년<sup>11)</sup>에 기존 큰방 옆으로는 갯방, 정지 좌측으로는 잠실을 도리방향으로 증



도면 1. 신원수 가옥 배치평면도



도면 2. 이종해 가옥 종단면도

9) 국립민속박물관, 『강원도 산간지역의 가옥과 생활·삼척군·평창군·정선군』, 1994. 이러한 예는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속암리 단원의 김관택 가옥에서 볼 수 있는데, 너와를 이은 3칸 일자형, 귀틀집이다.

10) 기둥 규격은 네모기둥이 11.5~17 cm, 둥근기둥이 15 cm이다. 네모기둥은 최수현 12 cm, 김영호 12.5 cm, 박만진 13 cm, 정초일 15 cm, 이종해 15.5×16 cm, 신원수 16×17 cm 등이다.

11) 사랑방 내부의 천장 고마미가 바닥에 “歲在乙酉七月十七日午時立柱上樑 一應天三之光 備人間之五福”라고 쓴 상량문이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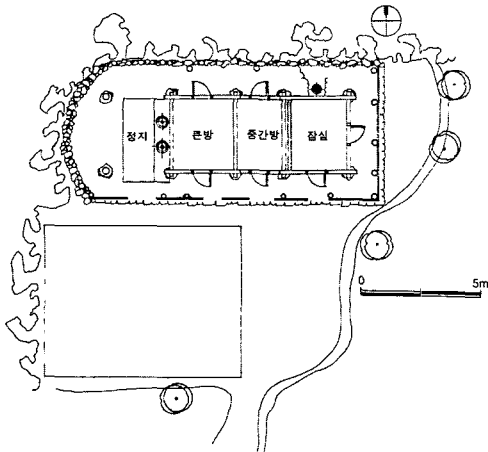
설하였는데, 증설공간은 모두 화통집이다. 갓방은 가족수의 증가, 잠실은 해방전후 경에 성행했던 양잠을 위한 공간이었다. 그리고 1960년경에는 잠실 옆의 축담에 잇대어 마구 1칸을 화통집으로 증설하였다.

[사례 2] 이종해 가옥

평면은 정지 1칸에 방 3칸을 연속으로 배열한 4칸형으로 벽체구성은 큰방만 투막집이고, 나머지는 화통집이다. 이처럼 몸채에서 벽체구성이 서로 다른 것은 개척 초기에 정지(8尺)+큰방(10尺)의 2칸 투막집을 짓고 살다가 1945년 전후쯤에 큰방 옆으로 늘어난 가족을 위해 중간방 1칸을 증설하였고, 1970년 경에는 주생업인 밭농사와 더불어 새로운 소득사업으로 성행했던 양잠을 위한 갓방(잠실) 1칸을 중간방 옆으로 증설한 것이다. 이때 짬에 갓방 앞쪽으로는 보방향으로 우데기 벽 일부를 제거하고 소죽가마를 걸어 마구도 증설하였다. 후대 증설된 중간방과 갓방, 마구는 모두 네모기둥에 심벽을 친 화통구조이다. 특히 갓방은 중간방과 약 1.1 m 가량 이격되어 있고, 축도 10°가량 틀어진 상태에 전면 벽도 1 m 가량 돌출되어 후대 증설한 흔적이 뚜렷하다.

[사례 3] 정기록 가옥

평면구성은 정지+큰방+중간방+잠실의 일자형 4칸형 홑집이다. 이런 민가형은 3칸형을 기본형으로 해방 전후쯤에 양잠을 위한 잠실 1칸이 증설된 경우이다. 간살은 중간방만 6.6尺이고, 그 외는 9尺이다. 몸채 위주의 평면구성으로 볼 때, 모든 주생활은 몸채에서 이루어지고, 몸채 사방으로는 폭 1.1 m의 축담



도면 3. 정기록 가옥 배치평면도

에 널판재를 댄 우데기를 설치해 부족한 내부공간을 최대한 확장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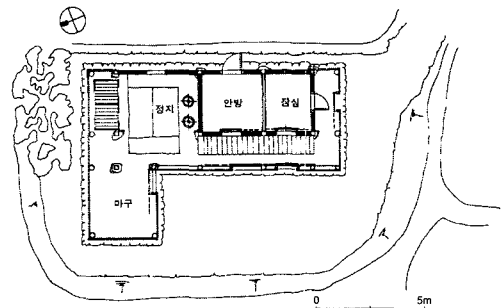
[사례 4] 최수현 가옥

최수현 가옥<sup>12)</sup>은 1910년대에 정지+방+방의 3칸 투막집을 짓고 살다가 1960년경에 가족수가 늘어나고, 영농개선으로 농가소득에 큰 영향을 주었던 특화작물인 양잠을 위해 잠실 1칸을 화통집으로 증설하여 5칸의 중상류층 가옥으로 발전하였다.

<화통집>

[사례 1] 이경백 가옥

평면은 정지에 방 2칸을 연속으로 배열된 막살이계의 3칸형이다. 가옥은 1970년 경에 정지 앞으로 마구 1칸을 보방향으로 확장하였다.



도면 4. 이경백 가옥 배치평면도

[사례 2] 김영호 가옥

평면은 정지 1칸에 방 2칸을 연달아 배치시킨 一자형 3칸형이다. 그후 1970년 초에 방 옆의 쪽마루에 잇대어 누에를 치기 위한 잠실 1칸을 도리방향으로 확장하여 4칸형으로 변화하였다.

[사례 3] 김기철 가옥<sup>13)</sup>

평면은 1925년에 정지 1칸과 방 2칸을 연속으로 배열한 一자형 3칸형으로 1949년에 잠실 1칸을 방 옆으로 증설하여 주생업의 변화에 대응하였다. 이때 잠실 주칸이 13.3척으로 정지 8.7척, 방 7.5척, 9.5

12) 조사당시 최수현(본관 : 경주, 80세)씨는 서면에 살고 있어 빈집이었다. 현 소유자가 8세때 나리리에서 이곳에 이사왔다. 큰방 고미밭이 바닥에는 “庚申年元月二十七日未時立柱上樑” 상량문이 남아 있어 1920년에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13) 김기철(본관 : 김해, 고향 : 경북 경산시 자인면)가옥은 1925년 경에 건립된 집이다. 잠실은 천장 고미밭이 바닥에 “乙丑七月二十三日…”라고 쓴 묵서 상량문이 남아 있어 1949년에 증설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척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넓은 주칸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1970년경에는 몸채 좌측에 농작업용 창고의 부속채를 지어 몸채의 부족한 공간을 보완했다.

[사례 4] 손태준 가옥

가옥은 1930년대에 정지와 큰방 2칸을 건립한후, 1960년대에 큰방 옆으로 잠실 1칸을, 정지 옆으로는 창고 1칸씩을 각기 도리방향으로 확장하는 변화를 보였다. 그리고 창고 앞으로는 양축을 위한 마구와 변소 2칸을 토담으로 달아내어 평면은 전체적으로 ㄱ자형으로 변화하였다. 그리고 1990년에는 채소재 배로 생업이 전환되면서 기존 마구간을 저장 및 작업공간으로 활용하고 몸채 앞에 마구를 새로 지었다. 이처럼 울릉도 민가의 벽재료와 구조체계의 변화양상을 살펴 본 결과, 개척초기에 주변의 울창한 산림을 벌목해 지은 투막집이 1945년경 이후 산림벌목<sup>14)</sup>이 시행되기까지 울릉도 전역에서 지어졌다. 이때 화통집은 투막집보다는 조금 늦은 1925년경에 이미 울릉도 전역에 지어졌으며, 1945년경 이전까지는 아마도 투막집과 화통집이 울릉도내에서 공존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공존현상은 지역적, 시기적 차이에 따라 영향을 받았겠지만 울릉도에 정착한 정착민의 출신지와 경제력도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50년경부터는 개척초기에 지은 투막집의 경우에 가족수의 증가나 생업에 필요한 공간들을 도리방향이나 보방향으로 확장하여 부족한 내부공간을 확충하는 단순한 변화과정을 엿 볼 수 있다. 이때 증설공간은 모두 화통집으로 지어지게 되며, 투막집은 산림정책의 닦도 있지만 새로운 주거욕구 등으로 더 이상 짓지 않게 되었다. 특히 투막집의 벽체 축조 및 결구방식은 우리나라의 산간 투막집과 큰 차이가 없지만 처마구조는 강원도 산간지대의 소수 투막집과 유사해 특정 지역과의 일정한 주문화권을 파악해 볼 수 있다.

2. 우데기

우데기는 지붕의 처마 끝 안쪽에 처마를 따라가며 가는 기둥을 세우고 새나 싸리, 옥수수대로 이엉을 엮어 새 벽을 친 것이다. 기둥은 눈이 많은 지역인 이곳 가옥에 방설(防雪)설비 이외에 방풍, 방우, 차양의 기능을 갖는다(장보웅, 1981, 192). 이처럼 우데기는 겨울철 추위와 강풍, 적설 및 결빙기간이 긴 울릉도의 기후특성이 가장 잘 반영된 울릉도만의 독특한 환경설비인 셈이다.

우데기의 설치면과 사용재료는 <표 4>와 같다. 개척 초기에 지은 것으로 전하는 신원수, 이종해, 최수현 가옥의 우데기는 전면의 처마기둥 바깥에 별도의 기둥을 세워 우데기를 설치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전면 처마구조로 볼 때, 건립당시에 우데기는 전면에만 설치하였으나 공간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우데기를 앞으로 더 확장한 흔적으로 추정된다. 우데기 벽의 재료는 새나 옥수수대, 골함석, 널판재로 구분된다. 새나 옥수수대는 나리리에 각종 문화재로 지정된 5가옥에서만 볼 수 있고, 그 외 대부분은 골함석 또는 널판재로 마감했다. 일부 가옥은 판자에 함석을 덧붙여 보강한 가옥도 있다. 이처럼 우데기 벽의 재료는 개척 초기에 자연자료인 새나 옥수수대를 엮은 것이 사용되다가 1945년경 이후에 주생업의 변화로 형편이 나아지면서 내구성 좋고 경량에 취급이 용이한 널판재나 골함석 등으로 주로 교체되었다. 우데기의 출입문은 개폐방식과 사용재료에 따라 미단이·미서기 유리문과 판자문, 거적문으로 구분된다. 출입문의 위치는 각 방문 앞에 내었는데, 이는 축담에서 방으로 드나들기 쉽고, 실내의 채광과 환기를 고려한 조치이다. 출입문중 거적문은 새를 발같이 엮어 말아 올렸다 내렸다하여 개폐하는 것으로 비교적 개척 초기의 민가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나리분지에 각종 문화재로 지정된 4가옥에서만 볼 수 있다. 이 거적문 이외에 미단이·미서기문은 손모익, 대구천주교회재단 가옥, 이옥순, 이경백, 손태준, 황부근, 윤성진, 박만진, 이수철, 김기철 가옥에서 볼 수 있다. 또 널판재 미서기문은 김영호, 나리리 너와집, 최수현, 정초일 가옥, 함석 미단이문은 김선임 가옥에서 사용되었다. 이때 미서기·미단이문의 설치하는 가옥간에 다소 시공간 차이는 있지만 대개 우데기 벽의 교체시기와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이

14) 울릉도 관찰사 이규원이 고종 19년(1882)에 순찰한 보고에 따르면 造船 樹木으로紫檀香, 梧桐, 柏子, 冬栢, 黃柏, 桑木, 厚朴, 槐木, 檜木, 馬柯木, 老柯木 등이 많았다고 한다. 개척령이후 日人들이 珍樹木인 솔송나무, 섬잣나무 등을 건축용 목재로 육지에 반출, 판매하거나 薪炭用材로 사용하면서 산림은 황폐해졌다. 1910년 일제강점기때 일인의 盜濫伐를 금지하고 울릉도에 一株도 없던 海松을 조림하기 시작하였다. 해방 후에도 산림남벌은 계속되어 오다가 1962년경 연탄이 공급되면서 그나마 조림이 시작되었다.

표 4. 대상가옥 몸체의 우데기 설치면과 사용재료

설치면	4面	3面	2面	1面
	11가옥	4가옥	3가옥	5가옥
	전, 후, 양측면	전, 양측면	전, 측면	전면
규모	3칸형-2가옥 4칸형-6가옥 5칸형-3가옥	3칸형-1가옥 4칸형-2가옥 5칸형-1가옥	4칸형-1가옥 5칸형-1가옥	4칸형-2가옥 5칸형-3가옥
재료	① 새(茅)-3칸-1가옥, 4칸-3가옥, 5칸-1가옥 ② 골합석+판재-3가옥 ③ 골합석-2가옥 ④ 판재-2가옥	① 골합석+판재 ② 골합석 ③ 판재 각 1가옥 씩	① 골합석 ② 판재 각 1가옥 씩	① 골합석-3가옥 ② 판재-2가옥
가옥	나리리 5가옥, 김선임, 이수철, 윤성진, 박만진, 이옥순, 정초일	이경백, 황부근, 최수현, 정기복	손모익, 이종해	신원수, 손태준, 김영호, 대구천주교회유지재단, 김기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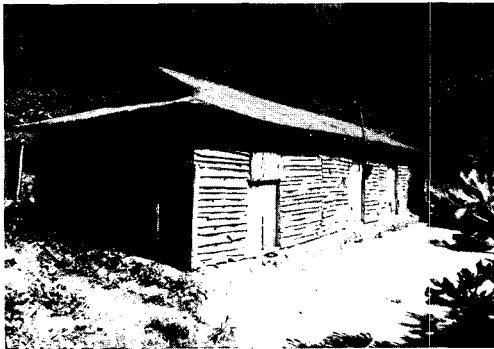


사진 3. 김영호 가옥의 우데기와 출입문, 지붕



사진 4. 김기철가옥 축담



사진 5. 김영호가옥 축담

들 미닫이문중에 가장 많은 것이 유리 미닫이문이다. 이 문은 방벽 사방으로 설치된 우데기가 실내채광이 불량하고 환기가 잘 안되는 단점을 보완하고, 개폐도 용이함으로 많이 애용되었다. 이때 문의 규격도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우데기에 의해 형성된 폭 1~2m의 축담은 반외부의 완충공간으로 방간의 통로뿐만 아니라 적설시에는 작업, 저장공간으로 활용된다. 그리고 지붕과 천장사이의 열적 완충공간을 충족시켜 주는 곳으로 이는 주생활 행태적 측면과 열환경 조절적 측면에서 매우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이경희, 1999 : 107)하는 공간이다. 조사대상 가옥의 평면구성에서 방 앞 축담에 설치된 쪽마루는 대개 부속채의 증설시기인 1950년부터 1980년까지 진행되었다. 이때 축담은 기존 작업, 통로, 저장기능이 부속채의 증설과 생활형태가 변화되면서 각 방간의 원활한 동선기능과 보다 안정된 휴식, 일상 작업공간

으로 용도로 변용되었다.

울릉도의 평면구성은 몸체에 모든 주생활이 집중되는 자족적인 평면으로 꾸준히 변용시켜왔다 이때 우데기는 험한 산간에 겨울이 긴 다설지역의 울릉도 기후풍토를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지역민이 고안해 낸 매우 유용한 이중외피구조이자 완충공간인 셈이다. 그러나 우데기는 사회·문화뿐만 아니라 생업변화에 따른 부속채 증설, 생활형태, 현대식 난방설비의 도입, 밝고 쾌적한 주거환경 등이 반영되면서 재료, 개폐방식, 크기 등에서 변화되었다.

3. 지붕재와 지붕형태

지붕은 풍우를 막아주고, 햇빛을 차단시켜주는 환경적·구조적 기능 뿐만 아니라 거주자나 건물의 격을 표현하는 형태상의 의장적 성능도 가진다. 이때 지붕재는 생업과 경제능력, 신분, 거주자의 취향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민가는 일차적으로 주변에서 얻기 쉬운 재료가 사용된다. 조사대상가옥의 지붕재의 형태는 <표 5>와 같다.

[실례 1] 신원수 가옥



개혁 초기에 지어진 것으로 전하는 신원수 가옥은 건립당시에 새지붕이었다. 그러나 얼마지나지 않아 너와지붕으로 교체되었고, 1960년 초에는 마늘농사가 잘 되어 형편이 나아지자 골합석으로 개량하였다. 한편 서면 남서리 주민들은 너와지붕에서 골합석으로 개량되기 시작한 시점은 대략 1945년 직후부터라고 한다.

[사례 2] 정기록 가옥

1932년에 이진된 투막집으로 이진당시부터 골합석<sup>15)</sup>을 이은 함석집이었다고 하며, 당시에는 “도당집”이라 불렀다고 한다.

표 5. 몸체의 지붕재와 형태

재료	너와	새	골합석
	1가옥	4가옥	17가옥
가옥	나리리 민속자료 제55호	나리리 민속자료 제56·제58호, 문화재자료 제182호·제183호	이경백, 정초일, 정기록, 황부근, 이종해, 박만진, 김기철, 이옥순, 최수현, 김선임, 신원수, 손태준, 김영호, 손모익, 이수철, 윤성진
형태	우진각 8가옥 맞배 2가옥	팔작 11가옥	맞배+가적지붕 1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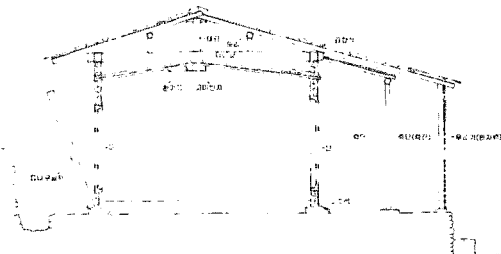
[사례 3] 최수현 가옥

이 가옥은 건립시에 너와지붕을 이은 투막집이었는데, 1960년경에 도리방향으로 방 2칸을 증설하면서 지붕도 골합석으로 개량하였다.

이처럼 지붕재중 개혁 초기에 주로 사용되었던 너

와나 새는 내구성이 나빠 잦은 교체시기와 많은 노동력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이때 지역민들은 경제능력만 있으면 지붕개량을 가장 우선시 실행되었던 것이다. 이때 울릉도 민가의 지붕재는 대체로 새 → 너와 → 골합석 순으로 개량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육지의 민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골슬레이트나기와지붕은 최근에 들어 사용되었다. 이러한 지붕개량은 각 가옥별로 생업의 전환으로 경제력이 향상된 탓도 있지만 산림벌목의 금지, 주생활의 변화 등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골합석은 1945년 이후에 울릉도의 보편적인 지붕재로 정착하게 되었는데, 해방 전에는 주로 울릉도내의 일본인 건물에 많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지붕재는 육지에서 모두 구입해와야 되므로 우선 가볍고, 운반비가 저렴하면서도 내구력이 좋은 골합석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지붕형태는 맞배, 우진각, 팔작, 맞배+가적지붕 4종류로 구분된다. 그중에 팔작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우진각, 맞배, 맞배+가적지붕 순이다. 맞배지붕은 신원수, 정기록 가옥 2동 뿐이고, 나리리에 각종 문화재로 지정된 5가옥과 최수현·이종해·황부근 가옥은 우진각지붕이다. 한편 팔작지붕은 맞배지붕에 양측면의 우데기에 의한 경사지붕이 결합된 다소 불완전한 형태이다. 이러한 팔작지붕은 육지의 팔작지붕과 비교하면, 합각면이 매우 작은 것이 특징인데 경북 북부 또는 강원도 산간 민가의 지붕 특성을 가지고 있다. 지붕물매도 약 6/10으로 육지의 4/10과도 큰 차이가 있다. 이처럼 울릉도 민가의 지붕형태와 물매는 험한 산간지역에 눈이 많은 자연환경에 자연스럽게 대응해 온 결과이다.



도면 5. 최수현 가옥 종단면도

4. 창 호

몸체 창호의 개폐방식은 <표 6>과 같다. 각 가옥별로 여단이문만 사용된 경우와 미단이문만 사용한 경우도 있고, 여단이·미단이문을 혼용해 단 경우도

표 6. 몸체 창호의 개폐방식의 종류와 구성(가옥 수)

구분	여단이			미단이			여단이+미단이	거적문
	세살	죽살	판자	세살	유리	함석		
방	2	6		5			9	
우데기			4		8	1	1	4

15) 정기록씨 회상에 따르면, 당시 남서리의 지붕재료는 주로 너와와 새집이었다. 한편 해변가에 자리잡은 일본인 가옥은 대개 함석집이었다고 한다. 당시에 가장 선호하던 지붕재료가 함석이었다고 한다.

있다. 방문의 살대 종류는 여단이문·미단이문 모두 세살과 죽살 2종류로 구분된다.

수적으로는 외여단이 죽살문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미단이 세살문, 외·쌍여단이 세살문 순이다. 창호설치는 투막집의 경우, 방문을 낼 자리에 통나무를 잘라 내고 그 양측에 문설주를 세워 출입문을 달았다. 이때 방문의 크기는 통나무 적층 수에 맞추어 크기를 정했다. 여단이문 중에 죽살문은 나리리 문화재자료 제182호·제183호, 민속자료 제56호·제57호와 정기록, 이종해 가옥등 비교적 이른 시기에 건립된 가옥에서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개폐 방식은 모두 외여단이이고, 각재로 문 울거미를 짜고 그 안에 띠장 2개~4개로 보강하여 가늘게 쪼갠 죽살을 45°로 교차시켜 창호지를 바른 것이다. 이런 죽살문은 육지에도 막살이계의 소농계층 민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특히 울릉도에서 죽살문이 많이 사용된 것은 육지에서 쉽게 구입해 올 수 없는 지리적 여건이 있었지만 주변에 산죽이나 대나무가 많이 자생하고 있어 이를 자연스럽게 활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세살문은 나리리 민속자료 제55호, 손모의 가옥 등 소수 사용되었고, 미단이문은 대개 외여단으로 황부근, 손태준, 윤성진, 김선임, 이수철가옥에서 보인다. 한편 한 가옥내에 여단이문과 미단이문이 혼용하여 사용된 예는 김기철, 정초일, 이경백, 김영호, 신원수, 박만진, 최수현, 이옥순, 대구천주교회 유지재단 가옥 등 많은 가옥에서 사용되었다. 신원수 가옥은 투막구조의 큰방 전면에는 외여단이 죽살문이나 후대 증설된 방 2칸에는 외여단이 세살문과 외짝 미단이문을 달았다. 김선임 가옥은 외여단이 죽살문을 1짝 미단이문으로 사용한 예이고, 이경백 가옥은 방 전면에는 미단이문, 후·측면에는 외여단이 세살문을 출입문으로 사용하였다. 이옥순·대구천주교회 유지재단 가옥은 각 실은 외·쌍여단이 세살문이고, 후대 증설된 잠실에는 외짝 미단이문을 달았다. 김영호 가옥은 전면 방문은 외짝 미단이문이고, 후면은 외여단이 세살문을 달아 출입토록 했다 정초일 가옥은 큰방 전면에만 1짝 미단이문을 달았고, 나머지 방문은 외여단이 죽살문이다. 박만진 가옥은 전면 방문에는 외·쌍여단이 세살문인데, 후면·측면과 양방간에는 1짝 미단이문을 출입문으로 사용했다.

이와 같이 조사대상 가옥의 몸체 방문은 방벽,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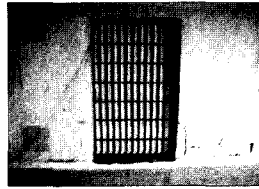


그림 6. 미서기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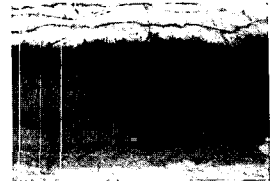


사진 7. 거적문



사진 8. 외여단이 죽살문

지는 벽체역할을 하는 우데기에 각기 출입문을 달았다. 이때 방문은 외여단이 죽살문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출입문이었는데, 해방 이후에는 생업전환 시 증설된 방에는 대개 사용상 편리한 세살문이나 외짝 미단이문이 사용되는 변화를 보였다. 또 각 방의 출입문은 전·후면에 서로 마주보도록 내고 방사잇벽에는 출입문을 내지 않았다. 따라서 방 출입은 외부 → 측담 → 쪽마루 → 각 방으로 연결되는 일련의 동선체계를 이룬다. 이때 전·후면에 마주보며 낸 출입문은 맞통풍효과가 있어 여름철 냉방뿐만 아니라 밝은 실내, 쾌적한 실내공기순환에도 유효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각 방간에는 서로 왕래하는 출입문을 내지 않은 것은 각 실의 보온과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 5. 천 장

천장은 지붕 밑에 가설하는 보온 및 치장을 위한 시설물이다. 따라서 건물의 용도나 기능에 따라 형태가 여러 가지로 분류된다. 우리나라 산간의 민가에서 많이 사용된 고미천장이 이곳 민가에서도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조사대상 가옥에서 방은 대부분 고미천장이다. 고미천장은 방 중앙에 고미반이(단면규격 20×1 cm, 24×10 cm, 29×10 cm, 26.5 cm×9.5)를 가로 지르고 그 양편에 원형 또는 각재의 고



사진 9. 윤성진 가옥  
축담 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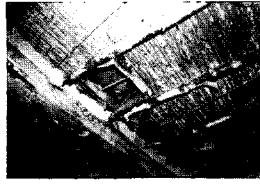


사진 10. 김기철 가옥  
잠실 천장과 환기통

미혀(단면 규격 6.5×12.5 cm)를 걸쳐 그 위에 산자를 깎아 다음 두께 10 cm 정도의 흙을 깔아 지붕재를 이었다. 고미혀는 고미받이부분이 높고, 방벽 양단은 대략 13~40 cm 정도 낮아 전체적으로 비스듬하다. 산자는 산죽을 새끼로 발처럼 촘촘히 엮은 것과 나무를 잘게 쪼갠 것을 새끼로 엮은 것 2종류가 사용되었다. 김영호 가옥은 직경 7~10 cm의 막기둥 7개를 양쪽 방벽 위에 걸치고 그 위로 산자를 깔고 두께 10 cm 내외의 흙을 덮어 마감했다. 축담, 정지 천장은 대개 방 천장과 우데기사이에서 직경 6~10 cm의 서까래를 40~60 cm 간격으로 수평되게 걸치고 서까래 위에 산자를 깔고 흙을 덮어 마감했다. 한편 잠실 천장에는 누에 생육시 방 공기의 순환을 위해 공기통을 설치하였다. 공기통은 고미받이와 고미혀 사이에 널판재로 만든 것인데, 크기는 대략 22~28 cm 정도이다 그리고 축담 천장에도 폭 1~2 m 정도의 환기구를 두어 여름철에 실내공기를 순환시키도록 했다. 이처럼 정지와 축담에도 빠짐없이 천장이 가설된 점은 육지의 일반 민가 천장과는 사뭇 다르다. 이러한 천장설치는 산악지대에서 긴 겨울과 결빙기간이 긴 울릉도에서 매우 효율성 높은 보온장치가 우선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여름철에는 더위에 불리하므로 실내공기를 순환시키기 위한 환기장치를 방과 축담에도 설치하는 지혜를 발휘하였다.

### III. 결 론

울릉도 민가 22가옥을 중심으로 벽체, 우데기, 지붕, 창호, 천장의 특성과 변화양상 그리고 변화의 요인을 조사분석한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울릉도는 육지와 지리적·기후적인 자연환경에 의한 온돌중심형 평면, 우데기 설치, 산전 등의 생업특성으로 인해 육지와는 다른 독특한 주문화권

을 형성하고 있다. 먼저 울릉도 민가의 벽체 재료와 구조체계는 화통집과 투막집으로 구분되는데, 개척초기에 주변의 울창한 산림을 벌목해 지은 투막집이 1945년경 이후 산림벌목 정책이 실시되기 전까지 울릉도 전역에서 지어졌다. 이때 화통집도 투막집보다는 조금 늦은 1925년경에 이미 울릉도 전역에서 지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945년경 이전까지는 아마도 투막집과 화통집이 울릉도에서 공존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공존현상은 지역, 시기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울릉도에 이주한 정착민의 출신지와 경제력도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45년 전후쯤에는 개척초기에 지은 투막집이 가족수의 증가나 생업의 전환에 따른 필요한 실들을 도리방향 또는 보방향으로 증설하여 부족한 내부공간을 확충하는 변화과정을 엿 볼 수 있다. 이때 증설공간은 모두 화통집으로 이는 이 시기에 주거욕구의 변화, 노동력 부족, 지속적인 산림정책 등으로 투막집이 더 이상 지어지지 않았다. 특히 투막집의 벽체 축조 및 결구방식은 우리나라 투막집과 큰 차이가 없으나 처마구조는 강원도 산간의 화전민가와 유사해 이들 지역과의 일정한 주문화권을 파악해 볼 수 있다.

둘째, 방벽 사방으로 달아낸 우데기는 전국 최대의 강풍과 겨울철 많은 눈, 긴 결빙기간이라는 울릉도 특유의 기후특성이 반영된 이중외피구조이자 완충공간이다. 이 우데기는 타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울릉도 주민들에 의해 자생된 것이다. 우데기는 대체로 개척 초기부터 1945년 전후쯤까지는 새나 옥수수대가 주로 사용되었으나 1950년 이후부터는 개별 가옥간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육지와 교류가 원활해지고, 주생업의 변화로 형편이 나아지면서 내구성 좋고 경량에 취급이 용이한 널판재나 골합석 등으로 교체되었다. 이때 출입문도 거적문이 유리 미서기, 미닫이문으로 교체되었고, 문의 크기도 커지는 경향이다. 이는 실내채광과 환기가 잘 안되는 우데기의 단점을 보완하고, 사용에 편리성을 추구한 주거욕구때문이었다.

셋째, 울릉도의 지붕재는 대체로 새 → 너와 → 골합석 순으로 개량되는 경향이고, 육지의 민가에 흔히 사용된 골슬레이트나 기와지붕은 최근에 그 사용이 급증되고 있다. 지붕개량은 대체로 1945 이후에

가속화되었는데, 이는 육지와 일정한 교류가 원활해진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산림벌목의 금지와 더불어 생업방식, 경제력, 생활양식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때 고풍석이 울릉도의 보편적인 지붕재로 정착하게 된 이유는 육지에서 지붕재를 모두 구입해 와야 되므로 우선 가볍고, 운반비가 저렴하면서도 내구력이 좋은 장점 때문이었다. 지붕 형태는 팔작지붕이 가장 많은데, 이는 육지의 팔작지붕과 비교해 합각면이 매우 작은 것이 특징으로 경북 북부 또는 강원도 산간지역의 지붕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또 지붕물매는 약 6/10으로 육지의 4/10과 큰 차이가 있다. 이처럼 울릉도 민가의 지붕형태와 물매는 험한 산간지역에 눈이 많은 자연환경에 자연스럽게 대응해 온 결과이며, 주생업의 변화, 산림정책, 새로운 주거욕구 등의 영향으로 1945년 이후에 지붕재에도 큰 변화성을 보였다.

넷째, 몸체 방문은 방벽, 정지는 벽체역할을 하는 우데기에 각기 출입문을 달았다. 방 출입은 외부 → 축담 → 쪽마루 → 각 방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동선체계를 갖는다. 이때 전·후면에 마주보며 낸 출입문은 맞통풍효과가 있어 여름철 냉방뿐만 아니라 밝은 실내, 쾌적한 실내조성에 유효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때 방문은 개척 초기부터 울릉도에 자생하는 산죽이나 대나무를 이용한 죽살문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1960년 이후에는 주생업의 전환이나 경제력이 나아지면서 부족한 공간을 확장하는 곳에는 사용에 편리한 세살문이나 외짝 미달이문을 주로 달았다. 특히 가장 큰 변화를 보인 우데기 출입문은 기존 거적문이 사용상 불편하고 어두운 실내조성이라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용에 편하고 밝은 실내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판자문, 유리문으로 교체되었다.

다섯째, 천장은 방뿐만 아니라 정지, 축담에도 가설된 것은 육지의 천장과는 많이 다르다. 특히 방 천장은 고미천장이 시기적인 변화없이 가설되었고, 축담과 정지에도 방벽과 우데기 기둥사이에 통나무를 수평으로 걸고 그 위에 산죽을 발처럼 엮어 깔고 그 위에 얇게 흙을 덮어 마감한 천장이 가설되었다. 이처럼 방 뿐만 아니라 정지나 축담에도 천장이 가설된 점은 울릉도 특유의 지역적 자연환경이 작용한 탓도 있지만 양잠과 같은 생업형태도 크게 반영되었다. 특히 해방 전부터 주생업으로 양잠이 성행하면서 기존 공간에 필요한 실을 확장할 경우에는 반드시 천장에 공기통을 설치하였다.

#### 참 고 문 헌

1. 경북대학·울릉도·독도종합학술조사단, 「울릉도·독도답사기요」, 1977.
2. 장보웅(1981), 「한국의 민가연구」, 보진재.
3. 울릉군(1989), 「울릉군지」.
4. 강영환(1991), 「한국주거문화의역사」, 기문당.
5. 조성기(1985. 2), 「한국남부지방의 민가 연구」, 영남 대 박사논문.
6. 국립민속박물관(1994), 「강원도 산간지역의 가옥과 생활-삼척군·평창군·정선군」.
7. 김일진(1996), 「옛집에 담긴 생각」, 도서출판 황토.
8. 하종한(1992. 6), 「민가유형의 분류 체계화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제3권 제1호, 69-84쪽.
9. 이경희(1999), 「울릉도 투막집의 환경건축요소에 관한 고찰」, 「울릉문화」, 울릉문화원, 제4집, 100-113쪽.
10. 조성기(1999. 1), 「태백산간지역의 민가형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계획계, 145-152쪽.

(接受: 2004. 7. 16)